**Human Computer Interaction #4-3**

2013210023 컴퓨터학과 김승윤

사용자 분석에서 사람들이 한 화면에 보여질 사진의 개수가 7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, 배치와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7개를 보여줄 것인지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를 보여줄 것인지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성비서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용자를 통해 잘 도출한 것 같습니다.

UI 요구사항에서 사진을 3 단계로 나눠 보여주는데 굳이 3단계여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습니다. 사진을 정렬할 때 날짜, 장소, 인물, 이벤트 등의 항목으로 정렬할 수 있는 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장소 종류나 날짜의 오름차순, 내림차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음성 비서를 호출하기 위해 빈 화면을 두 번 더블 클릭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성 비서에게 명령을 줄 때 새로운 명령을 주는 경우와 이전 명령과 조합하는 경우,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음성 비서와의 대화를 종료하기 위해 마무리 멘트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. 새로운 검색을 하려고 할 때 불필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음성 비서의 질답 형식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.